

그리스도인의 나라사랑

How Christians Love Their Country

잠언 14:34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8월 14일 설교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독도와 동해

요즘 한국을 보니 또 독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본디 우리 땅이고 지금도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 조용히 있는 게 좋다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반면 일본은 자꾸 문제를 일으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자료뿐 아니라 일본 자료조차 독도가 조선 땅이라 인정하는 게 많지만 우리가 힘이 없던 시절 맺은 조약 가운데 우리한테 불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져갈 경우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참에 또 바다 이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우리는 동해라 부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해라고 부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바다를 일본해라고도 부르고 한국해라고도 불렀는데 조국이 망해가던 무렵 일본이 열심히 로비를 해 일본해로 굳어졌고 지금도 웬만한 지도에는 일본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동해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고 꾸준히 주장을 했더니 지금은 일본해라는 이름 밑에 동해라는 이름을 괄호 안에 써 넣은 지도도 가끔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평화의 바다 아니면 우정의 바다로 이름을 바꾸자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거절했고 지금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그냥 일본해를 쓰자는 입장인어서 앞으로도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냥 일본해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해라 부른다고 바다가 일본 것이 되지는 않겠지요? 미국 남쪽 바다도 이름이 멕시코만 아닙니까? 노래는 하나 못 부르게 되겠지요. 무슨 노래입니까?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이걸 “보라 일본해에 떠오르는 태양.....” 이렇게는 못 부르겠지요?

동해가 일본해가 된다면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겁니다. 독도도 굳이 안 빼앗겨도 일본이 제 거라 우기기만 해도 기분이 얼마나 나쁠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독도도 우리 땅이고 바다도 동해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답이 좀 복잡해집니다.

민족과 나라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단위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본디 하나이던 인류를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서 민족으로 나누셨다 하는데 이 민족이 바탕이 되어 나라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인류를 민족 단위로 나누신 건 그렇게 해서 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심인데 그걸 바탕으로 생긴 국가 역시 죄를 줄이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롬 13:1-7).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국가라는 단위를 일반은총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무관하게 이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나라마다 법이라는 걸 만들어 지키게 하고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벌을 줌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강자의 힘을 제어하고 약자를 보호하면서 함께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의라고 부릅니다.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이 의는 정의, 평등, 평화, 질서, 협동, 등등 함께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가치를 종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나라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모든 나라를 함께 통솔할 수 있는 세계적인 주권 또는 세계정부 같은 건 없습니다. 유엔 같은 기관이 있긴 하지만 국가만큼 강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일이 잦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짓밟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로 싸우는 게 영토 문제고, 요즘은 경제 때문에도 싸우고, 환경 문제 갖고도 싸웁니다. 법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힘센 놈이 이기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이긴다, 이긴 의가 아닙니다. 제 나라 안에서 아무리 의를 잘 이루어도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해 죽이고 빼앗는다면 그건 의가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꼭 그렇게 잔인하게 안 해도 차별을 한다거나 사람의 기본 인격을 짓밟는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아니니 의가 아니지요. 치욕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삶이 어렵습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건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도 나라에 충성하라 합니다. 해야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역시 나라에서 하라 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나라가 의롭지 못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약 나치 독일 국민이라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군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 독도 안 뺏기게 해 주세요, 하나님 동계올림픽을 꼭 평창에서 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세계 드려야 할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우리 삶에 세상 나라가 중요하고 민족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것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라 사랑 겨레 사랑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로운 나라가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지 의를 짓밟는 나라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이 최고 목표인 사람들과 같듯이 생각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해 겨레에게 큰 힘을 주었지만 그 분들이 신사참배 거부에 목숨을 건 것은 일본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이 하나님의 뜻일 때는 불교인 한용운 선생, 천도교인 손병희 선생, 이런 분과도 손잡고 일할 수 있지만 만의 하나 민족이나 나라가 감히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 하거나,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요구할 때는 이 세상 나라를 과감히 내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 사랑이 첫째

우리도 다른 이 못지않게 나라도 사랑하고 겨레도 사랑합니다. 다만 원리와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동족을 사랑하되 동족의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모든 한국 사람은 우리와 문화적으로 한 덩어리입니다. 나와 말이 같고 문화가 같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들에게 주 예수에 대해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일보다 더 급하고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방법으로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 성경에 둘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입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해 전멸을 당할 위기에 놓이자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면서 만약 용서하실 수 없다면 차라리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고 했습니다 (출 32:32). 나를 버려 민족을 구하겠다 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민족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도 똑같은 민족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도 나 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모세하고 똑같이,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만큼은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롬 9:1-5).

이게 동족 사랑입니다. 우리 영토 안 뺏기는 것도 중요하지요. 우리네 좋은 문화, 좋은 역사, 뛰어난 능력을 세계에 과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집니다. 송두울 교수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민족도 사라집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주는 것이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모세 같은 민족 사랑, 바울 같은 민족 사랑이 우리가 해야 할 첫째 민족사랑입니다.

평화 사랑의 역사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민족사랑은 우리 겨레가, 또 우리 겨레가 중심이 된 남한, 북한이, 나아가서는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미국까지,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애쓰는 일입니다. 어딜 가든 한민족인 내가 몸담고 사는 나라가 의를 실천하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라 사랑, 겨레 사랑을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역사를 살피면 하나님이 우리 겨레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 역사가 참 평화를 사랑한 역사였다는 점입니다. 이웃 나라로부터 천 번도 넘게 침략을 받았지만 침략해 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 그랬다 자조하는 사람도 있지요? 힘이 없어 그랬든 일부러 그랬든 당하고도 보복하지 않고 또 우리가 힘이 있을 때도 그 힘으로 이웃을 괴롭히지 않은 일은 백번 잘 한 일입니다. 우리 겨레는 적어도 이웃 나라에게 죄를 안 지은, 의로운 나라였습니다.

이웃나라를 괴롭힐 때는 무력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화를 사랑했기에 무력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좋은 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만든 비변사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된 뒤에는 이 비변사가 커져 나라 운영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도 외적의 침입은 못 막았습니다. 못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잘 모르지만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대신 회의록 형식으로 된 운영일지는 꼼꼼하게 잘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해 한 권씩 254년 동안 쓴 273권이 <비변사등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 웃기지요. 나라는 힘이 없어 망해 가는데 기록은 뭐 그리 열심히 했는지 조선왕조실록도 나라가 망한 그 해 것까지 다 있다고 합니다.

기록 이야기가 났으니 말입니다만 우리 겨레는 뭐든 적어 기록으로 남기는 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은 적을 줄을 모른다고 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 목록을 보면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아홉 개로 가장 많습니다. 남한 혼자 한 겁니다. 항하 문명의 발상지라 자랑하는 중국이 일곱 개, 인더스 갠지스 문화를 가진 인도가 여섯 개입니다. 일본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작년까지는 하나도 없더니 올해 하나 겨우 올렸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더러 안 적는다 한 걸 보면 열등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찾아보기로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독일 13개, 오스트리아 12개, 러시아가 11개, 폴란드가 10개, 그리고 한국이 멕시코랑 공동 오위입니다. 등수 따지는 이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제대로 좀 알자는 뜻이지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하고 목판으로 된 팔만대장경은 불경이고, 훈민정음은 한글 창제 기록인데 조선왕조실록, 오일팔 민주화운동 기록물, 승정원일기, 일성록, 조선왕조 의궤 이 다섯 가지는 주로 일기 형식의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흑시나 하고 지금 십 사년째 일기를 날마다 써오고 있습니다. 열 개를 채워야지요? 마지막 동의보감은 정말 물건입니다. 사백 년 전에 만든 책인데 그 때 이미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 국민의 의료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짐작이 가지지요?

고난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겨레를 남달리 사랑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는 고난을 많이 맛보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총칼 만드는 일보다 붓 만들고 종이 만드는 일에 관심을 쏟다보니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 고난의 절정이 한일합병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바로 옆에 사는 이웃 일본에게 먹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먹히던 때는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기독교를 주로 믿는 서양의 여러 나라가 기독교에 대해 모르는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로 쳐들어가 식민지로 만들어 닥치는 대로 짓밟고 빼앗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에서는 기독교는 곧 제국주의 종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제국주의 이거 죄 가운데서도 참 큰 죄입니다. 나라의 수치,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에 먹히다 보니 그 전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 또 예수를 전하던 선교사들까지 조국의 광복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짓밟고 죽이고 하던 시절에 우리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삼일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벌이면서 복음이 겨레와 아픔을 함께 하고 또 주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의를 위해 일하는 참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고난 뒤에 숨은 은혜지요. 또 기독교를 주로 믿던 이 미국도 필리핀 같은 나라는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했지만 우리 조국에는 해방의 은인이 되어 우리가 또 복음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역사 덕에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 교회가 자라고 또 세계선교의 사명도 맡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어 이제 고난 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온 세계에 평화를 심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선교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제국주의 역사 때문에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옛날 못 살던 때는 그냥 있었는데 경제가 좋아지면서 역사를 배우다 보니 서양 선교사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니 자기들하고 똑같이 식민지 고난을 겪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식민지 고난을 겪은 나라 가운데서는 한국만큼 제대로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책임이지요.

우리 조국의 지리적인 위치를 봐도 우리 겨레의 사명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세계열강이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는 곳이 동북아 아닙니까? 한반도가 가운데 있고 중국, 소련, 일본, 미국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큰 나라끼리 이해득실이 엇갈릴 때 우리가 중간에 끼여 중재하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반도를 동양의 스위스처럼 만들자 하는 몇 사람의

주장이 참 마음에 듭니다. 남북통일부터 하고 또 세월이 많이 지나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영세중립을 선언한 다음 강대국들이 다투고 약소국들이 발버둥치는 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조정하고 화해하고 돕는 일을 한다면 오랜 수난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화와 교육

우리 조국은 지금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민족의 단일성이 누구보다 강해 절대 갈라질 수 없는 우리인데 두 나라로 갈라진 세월이 벌써 육십 년이 넘었습니다. 스무 해 전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옛 소련도 와해되고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는데 한반도의 휴전선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아쉽지요. 왜 안 무너졌을까? 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를 주신 뜻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한반도의 통일은 소련이나 독일하고 같이 해치우기에는 너무 특별해서, 나중에 세계 평화를 위한 멋진 계기로 삼으시려고 일단 놔두신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평화를 위해 애써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조국과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 겨레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 의를 이루는 일 역시 평화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겨레의 역사도 평화 사랑의 역사지만 이 역사의 출발점인 신화도 평화의 신화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의 최초 신화가 그 민족의 장래를 많이 좌우하는데 우리는 단군신화라는 참 좋은 신화를 가졌습니다. 일단 뿌리가 하늘에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하늘에서 내려와 한 일이 홍익인간, 곧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싸움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는 게 옛 신화인데 우리는 신화부터 이렇게 평화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그런 평화를 우리는 칼 대신 붓을 사랑하고 방패 대신 책을 만드는 역사로 이어 왔습니다.

한국의 꽤 유명한 어느 대학의 총장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일본에 가 보니까 민족교육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초등학교 일학년 교과서부터 “산은 후지산, 꽃은 사쿠라, 깃발은 일장기” 그렇게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을 흉내 내어 바둑이를 내세우고 있는데 얼른 우리 고유의 것으로 바꾸어야 된다 했습니다. 바둑이를 내세운다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혹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국어책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바둑아, 이리 와. 나하고 놀자.”

이게 미국을 흉내 낸 겁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생각입니다. 대학 총장까지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없습니다. “산은 백두산, 꽃은 무궁화, 깃발은 태극기” 이렇게 하면 민족교육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일본식입니다. 민족을 강조하니 오히려 군국주의 냄새가 납니다. “산은 룩키산, 새는 독수리, 깃발은 성조기” 그렇게 바꾸어도 그건 일본식이 아닌 미국식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배운 그게 가장 한국적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부르며 가정을 생각하고 마당에 뛰어노는 바둑이를 통해 자연을 생각하는 이게 한국적인 것 아닙니까? 민족을 강조하는 일본식보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하고 시 한 수 읊는 게 우리 겨레에게는 훨씬 잘 어울립니다.

우리의 소원

요즘 우리 겨레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십육 년 전에 뉴 헤이븐에서 텔레비전을 사러 전자제품 가게에 갔더니 일본 것만 잔뜩 진열되어 있고 한국 건 골드스타 하나만 테이블이 아닌 땅바닥에 놓여 있기에 종업원한테 잔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걸 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은 자리는 다 삼성, 엘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것도 한국 제품은 너무 고급이라 못 삽니다. 현대자동차도 구십년도 하반기에 눈에 띄게 수가 줄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일본차하고 같은 수준으로 치고 들어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씨가 남긴 명언 가운데 “나도 잘 한 게 많은데” 하는 게 있지요. 그 시대에 정보통신부 장관 하나를 잘 써 한국이 휴대폰 강국이 되고 지금도 삼성, 엘지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잣대미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전에 비행기를 만들던 기술이 있던 나라입니다. 우리는 논바닥에서 시작했는데 비행기는 못 만들었지만 시를 사랑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하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오천 년 동안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워온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겨레의 사명,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생각할 때마다 김구 선생이 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생각합니다. 옛날 교과서에 다 있지요. 김구 선생은 동학도 배우고 기독교도 배웠지만 이 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안 좋아할 수 없는 글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지나간 역사가 빛나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것은 아직 서곡이었다. 우리가 주연배우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서 서는 것은 오늘 이후다. 삼천만의 우리 민족이 옛날의 그리스 민족이나 로마 민족이 한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 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이 큰 일은 하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 놓으신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 민족은 비로소 제 길을 찾고 제 일을 알아본 것이다.”

의로운 세계를 위하여

내일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지 예순 여섯 해가 됩니다. 육십 육, 좋은 숫자지요? 성경 권수하고도 같고 저희 집 번지도 됩니다. 팔일오 광복절은 강자가 약자를 마구 짓밟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과부처럼 내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고 끈질기게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 역사는 참 아름답습니다. 평화 사랑의 역사나 고난의 역사도 아름답지만 광복절 같은 의로운 날이 있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팔일오를 하루 앞둔 오늘, 오늘도 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당신의 백성에게도 의를 위해 일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새겨 주위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도 전하고, 고통 받는 이웃을 찾아가 위로, 격려도 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의 사랑으로 본을 보여 평화를 심고 의를 이루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복 받는 우리나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겨레를 다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